

독서클럽 모임 보고서

일시	[3 주차]	모임장소	구글 미트
팀명	수세미와 풍풍	참여 학생	모세미, 박소현, 신지은, 오재원
진도	도서명: 레버리지	진도페이지: p.142 ~ p.181	

토론 내용

※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

<3주차 내용 요약>

주변 사람들과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를 상호보완하는 집단을 만들어 발전하라.

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일과 삶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.

<서로에게 멘토, 멘티가 되어 발전해나가는 공동체(마스터 마인드 그룹)가 있나요?>

(없다면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지?)

모세미 : 공식적인 것은 없다. 비공식적으로는 가족과 친구모임이 있다.

가치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,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.

박소현 : *문화생활 공동체

내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예술같은 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얘기를 나누며 교양을 쌓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싶다. 내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도 있고 견문도 넓어질 것 같다.

*미래를 위한 공동체

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같은 다른 같으면 같은대로 서로 멘토멘티가 되어 이 진로를 향해 가고 싶으면 이런 걸 하면 좋다며 정보를 주고 받고,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면 서로 격려하며 누군가 풀리지 않게 다같이 파이팅 하는 그런 분위기로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싶다.

*밴드 : 밴드 하나 결성해서 놀면서 음악하고 싶다.

오재원 : 재수를 함께 한 친구들! 모두 다 같은 서양화과라서 전공에 대한 지식과 고민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눌 수 있다. 또한 각자 다 다른 학교라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다.

신지은 : 씨리얼(독서모임) - 책을 꼼꼼히 읽고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. 단순히 책을 함께 읽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과 가치관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공동체이다.

예청공(신앙공동체) -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이다. 신앙공동체이지만 신앙외의 많은 것들을 배우며 함께 성장해나가는 공동체인 것 같다.

들불(밴드부 동아리) - 함께 합주하며 각자의 악기를 맞추어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임이다.

<요즘의 감사한 일 세 가지? (자유의 방법) >

모세미 : 1. 매일 자유로이 이동하게 도와주는 대중교통

2. 주변 음식점을 안내하고 리뷰를 공유하여 기회비용을 절약해주는 어플들

3. 책을 아이패드에서 넣어서 가방의 무게를 줄여주는 어플

박소현 : 1. 성격이 덜 예민해졌다. 작년에 너무 예민해서 스스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어 좋다.
2. 이번 공연 때 베이스를 하게 되면서 평소 듣던 장르와는 다른 장르를 좋아하게 된 게 좋다.
3. 작년에 정말 잘 맞고 어른스러운 친구를 만나게 되어 좋다는 것을 요즘에 특히 더 느끼고 있다.

오재원 : 1. 독서 클럽에 함께할 수 있게 해준 소현이에게 감사하다.
2. 그동안 엮매이던 것들이 있는데, 마음 편히 놀아도 된다는 말이 고마웠다.
3. 내 곁에서 나의 감정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고마운 것 같다.

신지은 : 1.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다는 것
2. 의미있고 보람차게 매일을 짹짹 채워서 보낼 수 있다는 것
3. 나를 구성하고 이루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. 내 생각들과 환경들, 주변사람들.

<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'가치'를 알아보시다.(ex)가족이나 친구, 2명 정도) >

모세미 : 엄마) 가족, 건강, 돈, 화목
 가족이 없다면 '나'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.
 친구) 가족, 친구, 일, 돈, 사랑
 일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족과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.

박소현 : 친구1) 내가 어른스럽게, 더 멋진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해준다.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.
 친구2) 나는 내가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데 그런 친구여서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.

오재원 : 동기들) 나에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친구들이다.
 친구) 나를 존중해주는 친구들에게서 가치를 찾는다.

신지은 : 친구A) 사랑하는 사람들. 돈. 여행. 건강. 자유
 친오빠) 건강. 성경. 기도. 음악. 관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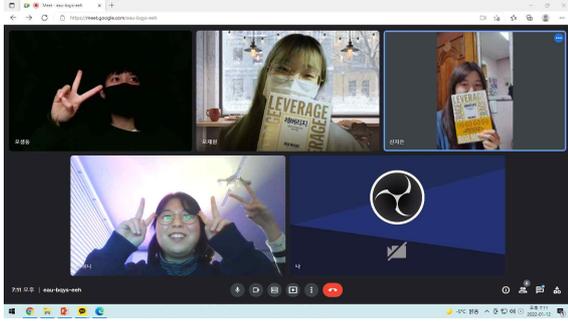
<추천하고 싶은 습관이나 행동이 있나요?>

모세미 : 뉴스보기, '공부를 못하더라도 세상을 알아야한다'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계속 보게 되었고,
 사회생활을 하며 어른들과 대화를 하거나 과제를 할 때 시장파악에 수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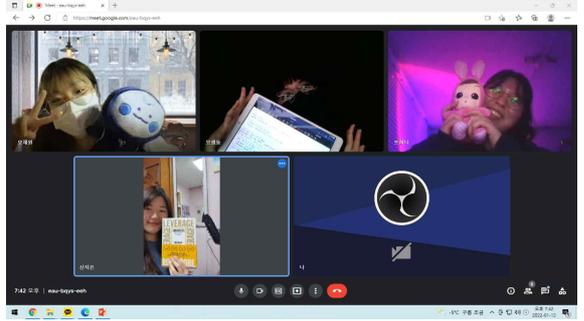
박소현 : 누구에게나 살갑게 대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.

오재원 : 책 읽을 때 낙서하듯이 나의 생각을 필기하는 것이 좋은 습관인 것 같다.
 또한 평상시에 항상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.(전공 관련)

신지은 : 기록하는 습관을 추천하고 싶다. 살아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순간들이 기록되지 않고 휘발된다는 것을
 체감하게 되었다. 기록하다 보니 후에 나를 다시 돌아보기도 수월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할 수 있어
 좋은 것 같다.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책을 출간해보고 싶기도 하다.



< 모세미, 오재원, 신지은, 박소현 >



< 오재원, 모세미, 박소현, 신지은 >